

1115(화) 로마서 5-8장 성도, 성령의 사람

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<사랑>하셨습니다(5:8,8:32,37).
성자 예수님은 <은혜>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(5:6-8).
보혜사 성령님은 믿고 영접하는 이에게 내주하셔서
존재와 삶에 감화/감동/역사하실 것입니다(8장).

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시고
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.*
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/현재/미래 모두가
<천국 왕실>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(5:1-2,10-11,8:37).

*헬) prosagoge, 가까이 가져가다, 소개하다, 고위급과의 친분

성도들은 <세례>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(6:3-5).
세례 받으며 우리의 옛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,
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으로 나아옵니다.
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놓인 죄의 종이 아니라,
의의 종,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
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(6:11-23, 8:2).

성도의 가장 큰 표지는 성령입니다(8장).
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
깨달음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(7장).
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며
본이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 가십니다(8:26-27,29-30).
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(8:28).

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, 성령의 사람입니다.
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.
영의 일을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(8:5-6).
바랄 수 없는 중에도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하고(8:11,24,25),
어떤 환란도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.

(5:3-4,8:31-39)

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?

- ❶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있습니까?
- ❷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로마서 5-8장